

# 5·18 38주기 행사 시민이 평가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38주기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시작된 가운데 각 행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민모니터링단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5·18 38주기 행사위원회는 38주기 5·18 행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행사가 끝난 뒤 참여 단체별로 평가가 이뤄졌지만, 미진

## 행사위, 15명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 독립운영체제...2~3명씩 조이뤄

한 부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행사부터는 독립 운영체제의 시민모니터링단이 활동

한다. 모니터링단은 2~3명씩 조를 이뤄 행사위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행사를 평가한다. 각 행사가 의미에 맞게 치러졌는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시민 의견 수렴 등 각 행사별로 지표를 만들어 분석한다.

시민모니터링단의 평가는 행사가 끝난 뒤 사료화 작업을 거쳐 38주기의 추후 행사에 반영된다.

5·18 38주기 행사위 관계자는 "독립적으로 5·18 38주기 행사를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추후 행사에 반영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광주시, 제4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정중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8일 오전 시청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제4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산어린이집 원생들의 합창곡 '어버이 날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다.

## 오는 12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 개방

###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념...철쭉·신록과 어우러진 행사 풍성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7일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해 오는 12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서석대 주상절리대부터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망하고 부대정문으로 나오는 0.9km 구간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12일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확정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해 광주, 담양, 화순지역 시·도민이 함께 즐기는 방식으로 열린다.

유네스코 인증을 주도한 전남대학교 지질관광사업단 주최로 문빈정사 앞 잔디광장과 무등산 정상 등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빈정사 앞 잔디광장에서는 기념품 나눠주기, 풍물패 길놀이, 펼쳐지며 무등산 정상에서는 사전 길놀이를 비롯해 '모심, 타고 싹틔, 지오난장' 등을 주제로 제천행사가 열린다. 또 광주, 담양, 화순 등 3개 지역의 합수합도제를 표현한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광주시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질서계도 요원을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고 119구급차량과 헬기 등도 대기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 노선을 증편 운행하고 장원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무등산 정상개방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부대 출입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세계 속의 무등산을 알리는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 정상은 지난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다. 지난 2011년 처음 개방한 이후 2017년 10월까지 총 21차례 개방했으며 그동안 탐방객 40만7000명이 다녀갔다. **김정환 기자**

## 전남도, 경제불황 불구

### 1조 7000억원 투자유치

### 4개월만 97개 기업과 협약

전남도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군과 함께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올 들어 4월 말까지 97개 기업과 총 1조 7149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규모는 3270여 명이다. 지역별로는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진 나주에 38개, 영광에 12개, 담양 강진 영암에 각 6개, 해남에 5개, 장흥에 4개, 기타 시군에 20개 기업이 협약을 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34개 기업으로 가장 많고, 식품가공 23개, 철강기계 11개, 석유화학 5개, 전기차 분야 4개 기업 순이다.

투자협약 97개 기업 가운데 67%(68개)는 신규 투자이고, 나머지 33%(29개)는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온 기업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6개 기업, 부산 등 부경권에서 4개 기업, 광주권에서 19개 기업이 이전해온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증편 관리하는 7개 산단의 평균 분양률도 47.1%로 지난해 말보다 7.4% 늘었다.

산단별로는 영광 대마산단 13.9%, 나주 혁신산단 11.9%, 목포 대양산단 5.1%, 담양산단 2.4%, 장흥 바이오산단 2.2%, 강진산단 1.8%가 각각 늘었다. 목포 세라믹 산단은 분양률 증감이 없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산업, 전기차 및 자동차 튜닝, 식품과 생물 신재생 에너지, 첨단 세라믹, 드론산업 분야 등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단순 제조업 위주의 양적 기업 유치에서 게임 개발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식정보문화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집중 유치해 취업에 위해 떠나는 청년들이 전남지역에 정착할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 동구, 맞춤형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 호응

광주 동구가 치매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만들기 일환으로 지역 맞춤형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환자와 가족,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어울림 쉼터교실'이 지난달 26일 문을 열었다. 오는 7월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예방교육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회상치료 ▲공예요법 등 다양한 뇌운동 및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상자들의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막는다.

## 서구, 안전한 보육환경 부모 모니터링단 나선다

광주 서구가 학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직접 건강급식?위생?안전관리를 모니터링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부모 모니터링단은 지난 달 서구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서구에 주소를 둔 대상자를 공고하여 선정하였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4개 영역 26개 문항 보육지표를 활용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지 개선 지도 및 구청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남구, 대촌동에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광주 남구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대촌동 일대 주민들에게 지적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가는 지적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대촌동 일대에 찾아가는 지적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남구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촌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지적 현장 민원실을 운영 중에 있다. 찾아가는 지적 현장 민원실은 휴식기 기간인 8월과 휴가기간인 12월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현장 민원실에서는 지적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을 비롯해 지적측량 업무, 조상땅찾기, 도로명 주소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 대장 발급·정리 상담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 북구, 5·18기념행사 지원 종합대책 추진

광주 북구가 5.18 민주화운동 제3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지원대책 및 자체 추모행사를 마련해 추진한다.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5.18 민주화운동 제38주년 기념행사 지원 대책 7개 분야와 자체 추모행사를 국립5.18민주묘지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책으로는 ▲가로기 계양 ▲민주묘역 진입로 등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교통지도 ▲가로수벽 등 녹지정비 ▲의료지원반 운영 및 행사장 주변 특별방역 등 7개 분야이며, 해당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운영으로 참배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9일을 앞둔 북구의 날로 정하고 주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18민주묘지 주변과 시가지를 집중 정비한다.

## 광산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교육생 모집

광주 광산구가 영유아수련코치 등 3개 분야 74명의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

미취업자와 경력단절자를 위해 과정보정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까지 연결하는 이번 사업의 모집분야와 교육인원은 영유아수련코치 20명, 병원약동보호사 30명, 금형설계 24명.

지역 유이전문기관인 광주어깨동무공공육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영유아수련코치는 18일까지, 광주저재대학교와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가 각각 주관하는 병원약동보호사와 금형설계는 2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각 교육기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취업 의지가 높은 신청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나주 · 장성**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리

▶지정·건설 폐기물 처 ▶석면 해체공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삼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순천시 공고제2018-820호

**순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순천시가공동(25번지) 일원 순천경찰서 청사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9일

**순 천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안) 표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2	공공청사 순천경찰서	순 천 경찰서	순천시 가곡동 425번지 일원	8,410	3,043	11,453	전남고시 제1988-83호 (1988.5.10)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청사 순천경찰서	면적변경 (중 3,043㎡) - 기정 : 8,410㎡ - 변경 : 11,453㎡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순천경찰서) 변경

2. 관계도면 : 개계장략 (순천시도시과)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8.5.9. ~ 5.23.(14일간)  
나. 열람장소 : 순천시도시과  
4.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가.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사항은 순천시도시과(7496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